

내년 광주비엔날레 전시 계획 윤곽

자유롭고 다양한 현대미술 만난다

14일 공개된 오쿠이 엔위저 감독의 제8회 광주비엔날레 기본 구상(안)은 '주제 없이' 진행되는 과학적인 전시회라는 점이 일단 눈에 띈다.

▲주제 없이 치르는 대회

지금까지 광주비엔날레는 '열풍 변주곡' '人+間' 등 각 대회를 대표하는 '주제'를 통해 전시의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예술총감독이 전시 주제를 확정하면 그 주제에 맞는 의미 있는 작품을 가져와 전시하는 게 기본 구도였다.

엔위저 감독이 제시한 '주제 없이 비엔날레'는 확실화된 주제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시를 자유롭게 구성하는 개방된 형태를 띠고 있다.

엔위저 감독의 전시 구상은 크게 세가지다. '첫번째 섹션-연례보고(Annual Report)-일 년 동안의 전시'는 세계 각국에서 열린 전시 가운데 기획 의도에 적합한 전시를 광주로 초대하는 개념이다.

다양한 현대 미술의 현장을 보여 줌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술적 담론을 '광주'로 끌어들이 작품과 관객의 '교류와 만남의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영화, 연극, 춤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엔위저 감독은 단순히 기존 전시의 '반복'이 아니라, 광주라는 현장성에 맞는 특별한 체험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섹션-제안서(Position Papers)'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지역의 젊은 큐레이터와 디렉터들의 새로운 기획안을 기반으로 꾸려



14일 열린 광주비엔날레 이사회에서 오쿠이 엔위저 예술총감독이 2008 광주비엔날레 전시구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vi@kwangju.co.kr

연례보고-제안서-실행 3개 섹션...일부 '산만한' 전시 우려

지는 전시다. 현재 복안으로는 약 10명 내외의 큐레이터가 각각 5명의 작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전시를 만드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세번째 섹션-실행: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Insertions)'는 '광주'라는 전시공간에서만 볼 수 있는 특화된 전시다. 비엔날레의 세계화도 추구하지만 '지역성'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엔위저 감독은 5월 광주 의 의미 등 역사적 연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전시를 구상중이다.

엔위저 감독은 "주제는 슬로건에 불과할 뿐 큰 의미가 없고 비엔날레를 만드는 것은 주제나 컨셉이 아니라 전시 그 자체"라고 강조하며 "세 가지 기본 구상을 통해 특별한 전시회를 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산만한 우려

주제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일부 이사는 "특정한 주제가 없을 경우 전시의 집중도를 떨어트려 다소 산만한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7~2008년 세계 각국에서 열린 주요 전시 가운데 일부를 초대하는 섹션의 경우 세계 현대 미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감상한다는 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자칫 '재탕'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기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연계한 '국제학술회의-북경' 프로그램 역시 '비엔날레의 세계화'에 기여하겠지만 경쟁 관계인 상하이비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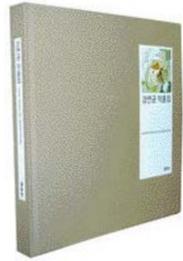
날레가 열리는 중국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구상은 가장 기초적인 안으로 엔위저 감독은 2개월 내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게 되며 예술소위원회(위원장 이용우)가 이번 구상안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엔위저 감독은 신장아전 공동감독의 자리를 매울 한국측 파트너와 관련 "한국 큐레이터와 함께 일하게 되면 훨씬 수월한 작업이 될 것"이라며 "전시 기획안이 체계화되면 적절한 파트너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채화가 강연균 세번째 화집

'모란' 연작 등 70여점 10월 서울 초대전 예정



로 화사함을 더하고, 망태기에 담긴 석류는 먹음직스럽게 벌어진 채로 빨강과 투명한 알을 드러내 보는 이를 유혹한다.

문학평론가 김우창씨는 '사물과 서사 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강연균 화백은 사물의 세계에 충실하다. 그리고 그것을 기린다. 우리는 그를 통해 다시 한번, 먼지와 죽음과 비탄의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확인하게 된다"고 썼다.

45년째 친분을 쌓고 있는 소설가 문순태씨는 '깊임없는 리얼리즘의 내면화 작업'이라는 글을 통해 "그는 그림을 만나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찾아 나서는 철저한 리얼리스트로서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사상가"라고 말했다.

강씨는 작품집에 실린 최근 작품들을 모아 오는 10월4일부터 15일 동안 서울 인사동 노화랑에서 초대전을 가질 예정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인사동서 만나는 '청자의 고장' 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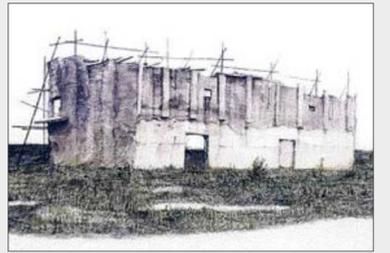
21일까지 동덕아트갤러리 '남도가는 길'展

'남도 답사 1번지' 강진의 청자와 넉넉한 인심을 담고 있는 바다 등 정겨운 강진의 풍광이 서울 인사동에서 소개된다.

15~21일 인사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열리는 '남도가는 길-강진'전은 강진군청의 후원을 받아 서울대 동양학과 출신 작가 29명이 참가하는 전시다.

서울대 동양학과 신하선 교수가 수묵으로 그린 다산초당을 내놓은 것을 비롯해 극사실적인 풍경을 추구하는 최영철씨는 강진의 싱싱한 여름풍경을 그렸고, 엄기원은 비단 위에 강진의 청자를 현대적인 채색화로 그려냈다.

정재호, 한은선, 최혜민, 정경심, 정용국, 권기범, 윤기연, 민재영씨 등도 지난해 10월 의뢰를 받은 후 강진을 찾아 나름대로의 화풍을 살려 그림과 사진, 영상작품을 만들었다.



정재호 작 '강진극장'

국내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인 강진청자문화제(9월8~16일)를 앞둔 홍보효과도 기대되지만, 한국화계에서 한창 왕성하게 활동 중인 유망 작가 상당수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다. 문의 02-732-645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미술대전 입상작 취소

건축부문 특선·입선작, 전남도전 중복 수상

지난 6월 열렸던 전남도 미술대전 입상작이 최근 수상작을 발표한 광주시 미술대전에서도 중복 입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수상이 취소됐다. 광주시와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 등에 따르면 제20회 광주시 미술대전 건축 부문 특선작 '재해석된 유전자의 언어'와 입선작 'Exciting &

enabling'이 전남도 미술대전 입선작 'Compound bodygenome', 'Dynamic Duo'와 동일 작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 13일 재심사한 결과 낙선 처리됐다.

광주 모 대학교 학생들의 작품인 '재해석...'은 전남도 미술대전에 출품한 작품 'Compound...'를 제목과 관

별만 바꿔 광주시 미술대전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 최병구 사무국장은 "동일 작품 여부를 모른 채 수상작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작품의 중복 출품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출품자 각각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광주시 미술대전의 건축 부문에는 모두 22점이 접수됐으며, 당선작 전시는 오는 30일부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평화의 빛' 광주에서 세계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평화선언 상징조형물 공개

오는 10월 5일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에 발표될 세계디자인평화선언을 기념하는 상징조형물의 조각도(사진)가 공개됐다.

14일 공개된 조형물 '평화의 빛'은 '빛의 미술사'로 불리는 독일의 잉고 마우러(75)가 디자인한 것으

로 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소용돌이 물기둥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분수대 옆 광장에 건립될 '평화의 빛'은 광주 정신(5·18)을 기리는 의미에서 15.18m의 높이로 제작될 예정이며 소재는 광섬유와 LED, 합성수지다.

잉고 마우러는 "물기둥은 빛의 도시이자 현대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광주의 역동성을 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3억5천만원이 투입된 조형물은 이번달 착공, 개막일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and '영화야니' (Movie Night) featuring various film posters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메가박스' (Megabox) cinema listing movies like '만남의 광장' and '화려한 휴가' with showtim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엔터시네마' (Entercinema) cinema listing movies like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and '미스터빈의 홀리데이'.

Advertisement for '콜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s like '스타더스트' and '미스터빈의 홀리데이'.

Advertisement for '무등극장' (Mudeung Theater) listing movies like '리턴' and '화려한 휴가'.

Advertisement for '제일시네마' (Jeil Cinema) listing movies like '화려한 휴가' and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